

## 元代 質孫服 중 “毛子”에 관한 고찰

최 규 순<sup>+</sup> · 包 銘 新<sup>\*</sup>

上海, 東華大學校 服裝學院 博士生<sup>+</sup> · 東華大學校 服裝學院 教授(博士生導師)<sup>\*</sup>

### A Study on Moja of Jilson in Yuan Dynasty

Kyu-Soon Choi<sup>+</sup> · Ming-Xin Bao<sup>\*</sup>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of Institute, Donghua University, Shanghai<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of Institute, Donghua University, Shanghai<sup>\*</sup>

(2005. 10. 30 투고)

#### ABSTRACT

The term *Moja*(毛子) is the name of *Jilson*(質孫), the traditional costume of Mongolian own meaning one colour. *Mo* generally means woolen or worsted fabric, so most scholars also regarded *Moja* as the same. This paper studied the kind of fabric of *Moja* by using the way of studying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ancient Korea and China. This study showed that *Moja* is ramie instead of woolen or worsted fabric. It also showed that its name was born the long history of the cultural exchanging process between China and Korea. *Moja* was written as *Musi*(木絲) or *Mosi*(沒絲) at China in early period, and changed to *Mos*(毛施) in ancient Korean. It was changed to Chinese Maozi in later period.

Key words: *Moja*(毛子), *Jilson*(質孫), Yuan dynasty(元), ramie(모시), woolen(모직물)

#### I. 서론

蒙古族은 소수의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독특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또한 이들은 동서양의 여러 문화와 생활 요소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服飾에서도 또한 그러하여 이전의 한족 정권에서와는 다른 여러 새로운 명칭들이 탄생하였다. 그 중 하나로 質孫服 중의 “毛子”를 들 수 있다.

元은 건국 초에 “毛子” 짜는 匠人을 모집하였고,

『元史』 輿服志의 皇帝와 百官 質孫服 중 6가지 5種의 복식에 이 명칭이 있으며, 『元史』 百官志의 정부기구 중에도 4곳의 毛子局이 있어, 元代 사회 생산과 복식생활에서 毛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사 연구에서 “毛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 학술계에서 그 명칭에 사용된 “毛”字를 따라 모직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는 “毛子”가 모두 여름철 質孫服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한 결과로, 여름철이면 황제가 수도를 떠나 피서를 가는 상황에서 모직물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또 毛子和 마찬가지로, 元代의 質孫服 중 하나인 “速夫” 역시, 註釋에 “毛布”라 기록되어 있어 모직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 速夫도 황제의 여름철 복식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본고는 먼저, 毛子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元史』 輿服志에 나타난 質孫服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이어 韓中 양국 사이의 무역과 문화교류의 각도에서 “毛子” 명칭의 유래와 직물의 종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質孫服은 다른 왕조와 구별되는 元만의 특징적인 옷이라 할 수 있고, 또 高麗 國王이 元에 갔을 때 연회가 베풀어지면 입기도 하였던 옷이므로, 元과 高麗의 복식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여겨진다. 元 관련 복식사료 중 質孫服이 가장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元史』 輿服志이다. 다만 이 사료에 기록된 質孫服의 구체적 복식이 명료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나오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고는 質孫服 중의 毛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元史』 輿服志에 기록된 質孫服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II. 元代 質孫服 制度

質孫服은 몽고족 고유의 전통복식으로서 중국어로는 “一色服”이라 하였으며, 겨울과 여름의 옷이 다르지만 옷의 형태에 대해 정해진 제도는 없었다.<sup>1)</sup> 위로 황제와 大臣으로부터 아래로 樂工과 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입었고, 비록 굵고 거침의 차이와 등급에 따른 구별은 있으나 모두 “質孫”이라 칭하였다.<sup>2)</sup> “質孫”은 또 “只孫 *zhisūn*”, “濟遜 *jìxùn*”, “積蘇 *jīsu*” 등으로도 표기 하였으며, 元代의 몇몇 詩文 중에는 “詐馬 *zhàmǎ*”라고도 하였다.<sup>3)</sup> 이 “質孫”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質孫”에 대한 해석으로 色을 뜻하는 蒙古語 *ji-sun*의 音譯이라는 것이고,<sup>4)</sup> 둘째는 “詐馬”에 대한

해석으로 겹옷[外衣] 혹은 衣服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jāmah*의 音譯이라는 것이다.<sup>5)</sup> 셋째는 위 詐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詐馬는 페르시아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蒙古語 *juma*의 音譯이라는 것이다. 즉 詐馬는 원래 소나 양 등을 도살한 후 뜨거운 물로 털을 제거하고 내장을 정리해 낸 가죽(俗稱 “白條”)을 일컫는 것으로, 축하연이나 제사, 혼례 등의 경우 불에 굽거나 삶아서 상에 올리는데,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jumaqorim*이라 하고 중국어로는 “詐馬宴”이라 한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이 세 번째 의견은 詐馬와 質孫의 관계, 質孫과 質孫服의 관계 그리고 質孫服이 가지는 “一色服”이라는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元史』 輿服志에 의하면 質孫服은 계절에 따른 구별이 있는데 황제는 겨울 11등과 여름 15등이 있고, 百官은 각각 9등과 14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그 내용은 옷과 관모로 나뉘며, 이를 분석해 보면 옷은 기본적으로 색상과 그 재료[衣次]를 함께 표기하였고, 관모는 색, 장식, 재료와 함께 帽, 冠, 笠 등 그 종류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옷과 관모가 대부분 같은 색과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一色服”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마르코폴로의 기록과<sup>7)</sup> 『近光集』의 “宿衛大臣 및 近侍에게 하사한 濟遜을 입고 珠翠金寶로 衣冠과 腰帶를 성대히 장식하도록 명하였다”<sup>8)</sup>는 내용 등을 통해 質孫服은 겹옷과 관모 뿐만 아니라 신[靴子]과 腰帶까지도 색상의 통일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색상을 통일한 후 옷, 관모, 요대 등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한편 백관들은 황제의 賜與가 있어야만 質孫服을 입을 수 있었다.<sup>9)</sup>

元代에는 궁정연회가 발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는 설날을 비롯하여 황제의 생일, 제사, 사냥, 諸王과의 朝會 등 13차례의 연회가 행해졌고<sup>10)</sup>, 부정기적으로는 황제의 즉위와 여러 臣들에 대한 尊號 및 황후와 태자의 冊立<sup>11)</sup> 등의 많은 행사에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元史』 輿服志에 의하면 質孫服은 “궁정연회[內廷宴會]에 착용 한다” 하였는데<sup>12)</sup>, 이 연회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한 가지 색상의 옷을

입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회를 '質孫服'의 명칭을 따라 '質孫宴'이라 칭하였고, 또 '詐馬宴[詐馬筵]'<sup>13)</sup>이라 표기하기도 하였다. 즉 각 개인이 관모에서부터 신까지 一色服으로 구색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참가인원 모두가 같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질손연의 본질이었다. 질손연은 일 년에 여러 차례 행해졌고 연회는 삼일동안 거행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 삼일동안 연회 참가자들은 매일 옷을 바꾸어 입는 관습이 있었다.<sup>14)</sup> 따라서 元의 황제와 귀족 및 대신 등은 모두 여러 벌의 質孫服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毛子” 명칭의 유래와 定義

〈표 1〉, 〈표 2〉에도 나타나듯이, 元代 皇帝의 여

름철 質孫服에 紅毛子答納, 白毛子金絲寶裏, 駝褐毛子, 百官의 여름철 質孫服에 駝褐毛子, 茜紅毛子, 白毛子 등의 “毛子”가 있다. 이와 별도로 『元史』百官志에는 工部소속의 朔州毛子局<sup>15)</sup>과 儲政院 소속의 上都異樣毛子局, 豐州毛子局, 縉山毛子旋匠局<sup>16)</sup> 등이 있고, “國初에 毛子 짜는 장인을 모집했다”<sup>17)</sup>는 기록도 함께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毛子는 그 명칭 때문에 모직물로 오해하기 쉽다.<sup>18)</sup> 그러나 이는 “毛子”가 모두 여름철 質孫服 입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착오이다. 元대의 황제는 매년 여름 (5月~8月末) 이면 수도인 大都(現 北京)를 떠나 上都(現 內蒙古 正藍旗)로避暑를 떠났고<sup>19)</sup>, 이 때문에 上都에 毛子局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만리장성 너머 북쪽을 고향으로 둔 몽고족에게 大都의 더위는 건

〈表 1〉 皇帝質孫服

季節	等	衣		冠	
		顏色及材料	註釋		
冬	1	納石失		金錦暖帽	
	2	怯綿裏			
	3	大紅	寶裏	寶裏, 服之有欄者也	七寶重頂冠
	4	桃紅			
	5	紫			
	6	藍			
	7	綠			
	8	紅	粉皮	·	紅金答子暖帽
	9	黃			
	10	白			粉皮
	11	銀鼠		其上并加銀鼠比肩 (俗稱曰襪子答忽)	銀鼠暖帽
夏	1	答納都納石失		寶頂金鳳鈸笠	
	2	速不都納石失		綴大珠於金錦	珠子卷雲冠
	3	納石失		·	
	4	大紅珠寶裏		·	珠緣邊鈸笠
	5	紅毛子答納		·	
	6	白毛子金絲寶裏		·	白藤寶貝帽
	7	駝褐毛子		·	
	8	金繡龍大紅羅		·	金鳳頂大紅笠
	9	金繡龍綠羅		·	金鳳頂綠笠
	10	金繡龍藍羅		·	金鳳頂藍笠
	11	金繡龍銀褐羅		·	金鳳頂銀褐笠
	12	金繡龍棗褐羅		·	金鳳頂棗褐笠
	13	金龍青羅		·	金鳳頂漆紗冠
	14	珠子褐七寶珠龍答子		·	黃牙忽寶貝珠子帶後檐帽
	15	青速夫金絲鬪子		速夫, 回回毛布之精者也	七寶漆紗帶後檐帽

<表 2>百官質孫服

季節	等	衣		季節	等	衣	
冬	1	大紅	納石失	夏	1	素納石失	
	2	大紅	怯綿裏		2	聚線寶裏納石失	
	3	大紅	官素		3	棗褐渾金間絲蛤珠	
	4	桃紅			4	大紅官素帶寶裏	
	5	藍			5	大紅	明珠答子
	6	綠			6	桃紅	
	7	紫			7	藍	
	8	黃			8	綠	
	9	鴉青			9	銀褐	
		10			高麗鴉青雲袖羅		
		11	駝褐		毛子		
		12	茜紅				
		13	白				
		14	鴉青官素帶寶裏				

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에 모직물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진다. 또 『出使蒙古記』에 “그들은 여름철에 거란과 동방의 기타 국가와 페르시아와 남방의 기타 지역에서 운송해 온 絲織品·織錦·棉織品의 재료로 만든 옷을 입는다. ……겨울에는 그들에게 향복한 북방의 수많은 지역에서 보내오는 진귀한 모피를 입는다”<sup>20)</sup>라 하였으므로, 몽고인들이 여름철에 모직물을 입지 않았을 것임은 더욱 명백해진다.

毛子が 무슨 직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무슨 연유에서 “毛”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대 韓中 간의 무역과 문화교류의 각도에서 고찰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韓中간의 무역을 통한 문화교류와 “毛子” 명칭의 생성

古代 韓中 兩國 사이의 무역은 공식적으로 公貿易[朝貢貿易]과 私貿易의 형태가 있었고 이 외에 密貿易도 성행하였다. 元 간섭 하에서의 高麗後期 무역은 자연히 元이 주된 상대가 되었고, 高麗는 元과 단일한 경제권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元을 통해 세계시장과 연결되었으므로, 대외교역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兩國의 무역에서 고려의 주요 수출품은 말[馬]·毛施·人參이 차지하였고, 그 중 말과 모시를 주 거래품으로 하는 상인의 무역 路程과 이윤

등에 관해 『老乞大』에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

#### 1) 『老乞大』에 나타난 毛施의 貿易路

이는 고려 상인이 무역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도중, 길에서 遼陽에서 온 중국 상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다. 그 고려 상인은 前年에, 말과 베[布子]를 가지고 正月에 개경을 떠나 의주를 거쳐 大都에 도착하여 가져온 물건을 팔았고, 5월에 山東濟寧府 東昌과 高唐에 가서 絹, 綾, 緜[綿] 등을 샀다. 여기서 산 견직물을 염색하도록 위탁하였다가, 거두어서 直沽(現 天津)에 가서 배를 타고 10월 안으로 개경에 돌아와 年末에 이를 즈음 물건을 모두 팔았다. 이렇게 무역을 위해 1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에게는 5利의 이윤이 남았고, 다시 말과 모시를 사서 무역에 나선 것이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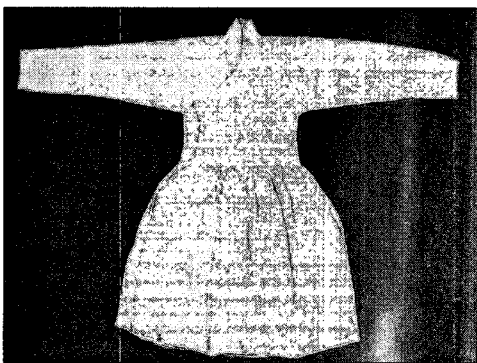
#### 2) “毛施” 어휘의 유래와 생성시기

위의 내용에서 고려인이 元에 들어가 파는 주요 직물로 모시가 등장한다. 이 책에서는 베[布]와 모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 모시에 대한 표기는 『노걸대』의 판본에 따라 “毛施帖裏布”, “毛施布”, “毛藍布”와 “모시뵈”로 나타나고, 『박통사』에서는 “毛施布”, “모시뵈”로 나타난다. 그 중 毛施帖裏布는 元대의 판본에서만 볼 수 있다.<sup>22)</sup> 崔世珍(?~1542)은 이 모시에 대해 중국어의 紵麻布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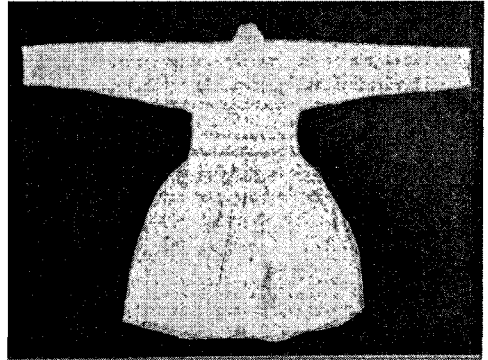
칭하는 “木絲布”, “沒絲布”에서 와전된 것으로, 후에는 중국인도 고려포[麗布]를 보면 고려인의 칭호를 따라 지칭하게 되었다 하였다.<sup>23)</sup> 즉 고려인이 중국어의 “木絲musi”, “沒絲mosi”라는 단어를 그 발음에 따라 “모시”라 발음하였고, 이를 글로 표기할 때 “모시”라는 우리말 발음에 부합하는 한자인 “毛施”를 사용하였다.

이 “모시” 어휘의 생성시기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으나, 고려 肅宗 8년(1103) 書狀官으로 개경에 왔다간 宋의 孫穆이 『鷄林類事』에 “저를 모[시]라 하고, 저포를 모시배라 한다 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sup>24)</sup>라고 당시 고려의 단어를 소개하였고, 趙汝適(1170~1231)의 『諸蕃志』(1225)에서도 “毛施布”<sup>25)</sup>의 기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8세기의 일본 문헌 중에 “Karamusi(고대 日語의 “Kara”는 한국과 唐을 가리킴)”가 있어<sup>26)</sup>, 최소한 8세기에는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mosi”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宋人이 기록한 “毛施”는 저마포를 지칭하는 한국어 임이 분명하지만, 고대 일어에서의 “musi”가 중국어의 “木絲musi”, “沒絲mosi”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미 한국어로 전환된 “毛施”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모시포는 『元代 漢語本 老乞大』에 “毛施帖裏布”로 기록된다. 기록으로 보아 帖裏를 만들기 위한 毛施布로 보이는데 海印寺 佛腹藏 유물 중의 요선 철릭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림 1〉“腰線帖裏” 前面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특별전, 2004.<sup>27)</sup>



〈그림 2〉“腰線帖裏” 後面

### 3) “毛(施)”에서 “毛子”로의 변화

고려의 모시는 그 직조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徐兢이 『高麗圖經』에서 白玉과 같다고 극찬을 하였고,<sup>28)</sup> 元에 대한 조공품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였다. 그 중 紋紵布가 특히 환영을 받아, 조공품으로 보내는 것 외에 元으로부터 빈번한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sup>29)</sup> 『黑韃事略』에 의하면, “氈·毳·革을 옛 것으로 하고, 絁·絲·金線을 새 것으로 한다.”<sup>30)</sup>라 하여, 몽고족에게 가죽이나 모직물을 제외한 견직물이나 棉 등은 새로운 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모시 역시 이들에게는 생소한 직물일 것인 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여무 더위를 조금이나마 쫓아줄 수 있는 실용성으로 인해 고려 왕조에 대한 모시의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元 사회의 고려 모시에 대한 환영은 중국에서의 저마포에 대한 단어 사용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 사용되던 “紵麻布”라는 표기법 외에, 한국어의 “毛”<sup>31)</sup>, 혹은 “毛施”<sup>32)</sup>에서 “毛”를 취하고, 여기에 중국어의 특성에 따라 “子”가 붙어 “毛子”라는 단어가 생성된 듯하다. 중국어에서 “子”는 의미 없이 명사 뒤에 붙거나, 일부의 동사·형용사 뒤에 붙어 명사화 하는데<sup>33)</sup>, “毛子”의 경우는 前者에 해당한다. 같은 경우를 한중 양국의 복식 명칭에서 간단히 예로 들면, 衫-衫子, 袍-袍子, 襖-襖子, 帽-帽子, 鞋-鞋子, 靴-靴子 등이 있다. 따라서 “毛”가 자연스럽게 “毛子”로 변화되었거나, “毛施”에서 “毛”를 취하여 “毛子”라는 명칭이 탄생

한 듯하다.

이렇게 한중간의 언어 교류 과정에서 저마포에 대한 지칭으로 “毛”가 쓰이기 시작했고, 『元史』에 “毛子”와 “毛子局”의 명칭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 2. 質孫服 중의 毛子 복식 분석

이상에서 元代 質孫服 중의 “毛子”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가 다시 중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최세진이 “모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인이 고려인의 칭호를 따라 고려포를 보면 직접 이 명칭을 사용했고”, 그 후 “기록하는 자들이 그 서로 부르는 것으로 인해 점점 명칭으로 굳어졌다”<sup>34)</sup>라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質孫服의 “紅毛子答納”은 홍색의 모시를 기본 재료로 큰 구슬[大珠, 당시 명칭 “答納”]로 장식한 옷으로, 元의 虞集이 쓴 『道園學古錄』에 의하면 大珠를 質孫服의 어깨와 등, 가슴에 달아 장식하였다.<sup>35)</sup> “白毛子”는 고려에서 흔히 부르던 “白紵布”일 것이며, “白毛子金絲寶裏”는 白毛子 중 金絲로 襪을 가한 것일 것이다. 여기의 金絲로 襪을 표현한 것이 織金을 의미하는지, 혹은 繡를 놓은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으나 元代에 織金이 대유행하여 거의 모든 직물에 사용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白毛子金絲寶裏 역시 織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駝褐毛子”는 낙타색의 모시를 뜻하는 것으로, 이 駝褐毛子質孫은 敦煌壁畫 332窟의 元代 供養人像에서 볼 수 있다. 이 공양인은 머리에 笠을 쓰고 있어 “겨울에 帽을 여름에 笠”<sup>36)</sup>을 쓰는 몽고족의 전통에 따라 여름철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 帽에서 靴에 이르기까지 “一色”이기 때문에 質孫服이라 할 수 있다. 백관의 여름철 質孫服 중 이에 해당하는 색으로는 駝褐이 있고, 따라서 그의 복장을 “駝褐毛子質孫”이라 명명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sup>37)</sup> 茜紅毛子は 꼭두서니로 염색한 홍색의 모시를 가리킨다.



〈그림 3〉 駝褐毛子質孫  
착용의 공양자상,  
돈황332窟



〈그림 4〉 〈그림 3〉의 模本,  
中華歷代服飾藝術, 1999.

## 3. 元代 “高麗樣”의 유행

元の 복식 제도는 세조 至元12년(1275)에 기본적으로 완비되는데, 『元史』 輿服志의 百官 質孫服 중에는 “高麗鴉青雲袖羅”가 있어, 복식에 있어 元初에 이미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元初의 분위기는 “毛子”가 元의 복식 규정에 정식으로 취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후기로 가면서 더욱 밀접해져, 元의 귀족들은 고려 여성을 취해야 名家로 행세할 수 있었고, 順帝 至正(1341~1367) 때는 궁중의 給事와 使令의 대부분이 고려 여성이었다. 이 때문에 사방의 옷과 帽子·신발·器物 등이 모두 고려 양식[“高麗樣”]을 따랐고, 陶宗儀의 기술에 의하면 이러한 분위기는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뿐만 아니라 南方에 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 IV. 기타 모시 관련 직물 명칭-“速夫”

皇帝 여름철 質孫服 중 “靑速夫金絲闌子”가 있는데, 그 주석에 “속부는 회홀 모포 중의 정교한 것이니(速夫, 回回毛布之精者也)”라 하였다.

“速夫sufu”의 주석 내용 중 “毛布”가 있는 이유로 이 직물에 대해서도 모직물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학자에 따라 羊毛 직물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의 “suf”에서 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비록 직물을 짠에 있어 毛도 섬세하게 가공하여 섬세 모포를 생산할 수는 있다 해도, 본래 모직물이 가지고 있는 보온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毛子”를 모직물로 가정했을 경우 여름철 직물로 적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속부” 역시 여름철 복장임을 먼저 고려한다면 저마포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 어휘의 유래 또한 국외로부터가 아닌 중국어 자체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한다.

고대 중국어에서 極細 저마포를 지칭하는 용어로 “속練子shuzi”가 있다. 戰國時代에는 總布suibu, 漢代에는 疏布shubu 혹 繡此+巾xuzi, 三國時代에는 疎布shūbu라 칭하였고, 魏晉南北朝 이후 練子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齊나라 땅에서는 습관상 시원한 것[涼]을 “惠”라 하였는데, 봄에 걸쳤을 때 가벼움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惠”에 실사[絲]변을 더하여 “總”가 탄생하였고, 이 글자에도 입었을 때 시원하고 상쾌함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漢代의 南陽 鄧縣 一帶가 總의 名產地였다. 漢의 史游가 쓴 『急就篇』에 의하면: “紵를 직조하여 布를 만드는데 疏shu와 같은 종류이다(紵, 織紵爲布及疏之屬也.)”라 하였고, 이에 대해 唐의 顏師古가 注하기를 “疏는 練이라고도 쓴다(疏亦作練.)”라 하였다. 『說文』에는 또 “總는 섬세한 疏布이다(總, 細疏布也.)”라 하였다. 六朝때에 “疏”字를 “練”으로 바꾸었고, 이때부터 練子는 극세 저마포의 總稱이 되었다.<sup>40)</sup>

質孫服의 “速夫sufu”가 여기에 나타나는 고대 중국어의 섬세 저마포를 지칭하는 總布suibu, 疏布shubu, 疎布shūbu, 疎子shuzi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元代 質孫服 중에 있는 특정 직물 명칭 “毛子”의 유래에 관해 고찰한 결과 다음의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학설은 毛子를 모직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저마포를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크다. 명칭의 탄생과정을 보면, 중국어의 저마포를 지칭하는 “木絲musi”, “沒絲mosi”의 발음으로 인해 한국어에 “毛施”라는 단어가 탄생하였다. 이후, 고대 한국의 고도로 발달된 모시 직조기술로 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출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게 되면서 중국인들도 이 명칭을 그대로 따라 부르게 되었다. 즉 상품과 함께 명칭이 채용된 경우라 하겠다. 元代에 이르러서 고려 모시에 대한 환영과 요구는 기타의 왕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는 결국 저마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毛子”라는 어휘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렇게 고대 韓中간의 무역과 문화교류 과정에서 “毛子” 명칭이 생성되고, 皇帝 質孫服 중의 紅毛子答納, 白毛子金絲寶裏, 駝褐毛子, 百官 質孫服 중의 駝褐毛子, 茜紅毛子, 白毛子 등으로 나타난다. 또 정부 기구 안에 工部 소속의 朔州毛子局과 儲政院 소속의 上都異樣毛子局, 豐州毛子局, 縉山毛子旋匠局 등의 毛子국이 탄생하게 된다.

“速夫sufu”는 고대 중국어의 섬세 저마포를 지칭하는 總布suibu, 疏布shubu, 疎布shūbu, 疎子shuzi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시 저마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元代 직물 용어 중의 “毛子”와 “速夫”가 저마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주의를 요하는 점은 비록 元代에 “毛”가 기타 시대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모직물을 의미하는 원래의 기능은 여전하였다는 것이다. 즉 “毛”는 元代에도 여전히 氈, 氍와 함께 주로 모직물을 의미하였고, 단지 당시 사회의 특정 유행에 따라 “毛子”가 예외적으로 저마포를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본고는 기존에 검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직물명칭에 대해 현재 필자가 접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추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고대 한국어 자료에서 모직물 “褐”을 “무즈”로 해석하는 등의 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 및 대조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質孫服은 總稱으로, 한 가지의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이 모두 質孫服이 될 수 있다. 이는 『元史』輿服志의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최규순, 고부자 (2005), 《元世祖出獵圖》중의 世祖 服飾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pp. 658-670.
- 2)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冕服 ((1976), 北京: 中華書局, p.1938). “漢言一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 凡動威大臣近侍, 賜則服之. 上至皇帝大臣, 下至於樂工衛士, 皆有其服. 精粗之制, 上下之別, 雖不同, 總謂之質孫云.”
- 3) 韓儒林 (1982), 穹廬集 - 元史及西北民族史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p. 247-254.
- 4) 史衛民 (1996), 元代社會生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 103; 尙剛 (1999), 元代工藝美術史, 沈陽: 遼寧出版社, p. 87.
- 5) 韓儒林, 앞의 책, pp. 247-254.
- 6) 納古單夫 (1989), 蒙古詐馬宴之新釋, 內蒙古社會科學, 第4期, pp. 57-58.
- 7) 馬可波羅, 陳開俊等合譯 (1981), 馬可波羅游記,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pp. 353-362.
- 8) 周伯琦(元), 近光集 券1, 詐馬行 (上海圖書館藏 抄本), “命宿衛大臣及近侍, 服所賜濟遜, 珠翠金寶衣冠履帶盛飾.”
- 9) 주2)참조: 蘇天爵(元),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2, 燕饗 ((199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 506). “國有朝會慶典, 宗王大臣來朝, 歲時行幸, 皆有燕饗之禮. 親疎定位, 貴賤殊列, 其禮樂之盛, 恩澤之普, 法令之嚴, 有以見祖宗之意深遠矣. 與燕之服, 衣冠同制, 謂之質孫, 必上賜而後服焉.”; 虞集(元), 道園學古錄 卷24, 曹南王勳德碑 (上海圖書館藏 明刻本), “三月, 賜以只孫宴服, 只孫者, 貴臣見饗于天子則服之, 今所賜絳衣也. 貫大珠以飾其肩背膺間, 首服亦如之.”
- 10) 馬可波羅, 앞의 책, pp. 98-103, 이 책에는 元의 궁정 연회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황제와 귀족의 조회[大朝宴] 의식, 황제의 생일[萬壽日] 및 설날[元旦] 등의 연회에 관한 것이다.
- 11) 韓儒林, 앞의 책, p. 247.
- 12) 주2)과 같음.
- 13) 周伯琦, 앞의 책, “稱名之曰濟遜宴, 華言一色衣也. 俗呼曰詐馬筵.”
- 14) 周伯琦, 위의 책, “如是者, 凡三日而罷, 其佩服日一易.”
- 15) 元史 卷85, 志第35, 百官1 (앞의 책, p. 2151).
- 16) 元史 卷89, 志第39, 百官5 (위의 책, pp. 2256-2259). “上都異樣毛子局: 大使一員, 副使一員. 至元二十年置, 受詹事院札”, “豊州毛子局: 秩正七品, 大使·副使各一員, 典史·司吏各一人”, “縉山毛子旋匠局: 秩正七品,

- 大使一員, 典史·司吏各一人.”; 熊夢祥(元), 析津志輯佚·物產·鼠狼之品 ((1983),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p.45). “異樣毛子局: 至元二十年立, 置使·副各一員, 俱是詹事院札. 三十一年, 改受徽政院札. 大德十一年, 改受敕, 用八品印. 至治三年, 罷之, 仍受院札. 上都怯憐口毛子局: 根脚系唐妃娘娘位下, 至元六年, 欽拔裕宗皇帝位下. 至元二十四年設局, 官四員. 內受敕達魯花赤一員, 受徽政院札付三員, 提領一員, 大使二員, 行使從七品印信. 目今止設官三員, 俱受院札. 官提領大使·副使各一員, 司吏二名, 實在篋子匠二百三十一戶. 縉山毛子旋匠局: 秩正七品, 行使銅印一顆, 大使一員, 典史一員, 司吏一人, (永樂大典卷一萬九千七百八十一局字韻第十五葉下)”
- 17) 元史 券89, 志第39, 百官5(pp.2261-2262)“陝西等處管領毛子匠提舉司, 達魯花赤, 提舉各一員, 國初, 收集織造毛子人匠, 至元三年, 置官二員, 皆世襲.”
  - 18) 예를 들어 尙剛은 『元代工藝美術史』에서 毛子局을 毛織機構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尙剛, 앞의 책, p. 45.
  - 19) 馬可波羅, 앞의 책, p. 110.
  - 20) [英]道森(1983), 出使蒙古記,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p.118-119. “從契丹和東方的其他國家, 並從波斯和南方的其他地區, 運來絲織品·織錦和棉織品, 他們在夏季就穿用這類衣料做成的衣服. 從幹羅思·摩薛勒(Moxel)·大不裏阿耳·帕思哈圖(Pascatu)和乞兒吉思(Kerkis), 並從在北方降服於他們的許多其他地區, 給他們送來各種珍貴毛皮, 他們在冬季就穿用這些毛皮做成的衣服.”
  - 21) 老乞大 上 (최세진 (1973), 老乞大·朴通事 諺解,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13-27).
  - 22) 경북대학교 출판부(2000), 元代 漢語本 『老乞大』,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p. 172; 朴在淵 校點 (2003),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 아산: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pp. 14-15.
  - 23) “毛施布, 此即本國人呼苧麻布之稱. 漢人皆呼曰苧麻布, 亦曰麻布, 曰木絲布, 或書作沒絲布, 又曰漂白布, 又曰白布. 今言毛施布即沒絲之訛也. 而漢人因麗人之稱見麗布則直稱此名而呼之. 記者者因其相稱而遂以爲名也”. 최세진, 앞의 책, pp. 95-96.  
최세진은 조선시대의 중국어 聲韻 학자이고, 譯官을 양성하던 司譯院의 正 崔正潑의 아들이다. 중국어와 畵文에 능통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번역을 담당하였고, 『四聲通解』,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畵文輯覽』 등 모두 17種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노걸대』와 『박통사』에 관한 언해작업을 하면서 “質問”이란 형태로 주석을 달기도 하였는데, 그가 『老朴集覽』의 凡例에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質問”은 본인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 질문 해 알아 온 것으로, 『노걸대』와 『박통사』의 초기 언어인 元代 언어와 조선 시대의 언어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것이었다(“質問者, 入中朝質問以來也. 兩書(老乞大·朴通事) 皆元朝言語, 其沿舊未改者, 今難曉解, 前後質問, 亦有抵牾, 姑并收, 以祛初學之碍, 間有未及質問, 大有疑碍者, 不敢強解, 宜俟更質”). 이렇게 최세진의 지식



- 은 통역을 통한 중국인과의 접촉, 또 직접 중국에 들어가 알아 온 내용들이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하겠다.
- 24) 孫穆(宋). 鷄林類事 ((1974). 漢陽大學校附設 國學研究院 影印). “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 『鷄林類事』의 原本은 이미 소실되었고,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說郛』와 『古今圖書集成(方輿彙編, 邊裔典第25卷, 朝鮮部彙考13)』 안에 기록된 것뿐이다. 陶宗儀(元末明初)가 지은 『說郛』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 즉 香港大學 馮平山圖書館藏 明抄本(嘉靖年間, 1522-1566), 中華民國 國立中央圖書館藏 藍格舊抄本(嘉靖年間), 順治版(清·順治4년(1647))과 民國版(民國16년(1927))이 있다. 民國版은 明版의 殘本에 의거하여 順治版을 校正한 것이고, 『鷄林類事』 역시 順治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 權文海(1534-1591)가 『大東韻府群玉』에서 『說郛』의 『鷄林類事』를 인용한 적이 있다. 年代를 고려해 보면 그가 참고한 것은 明版일 것이다. 『古今圖書集成』은 清·雍正3년(1725)에 완성되었고, 여기 수록된 『鷄林類事』의 내용은 위에 기술한 『說郛』와 또 차이를 보인다. 이기문, 『鷄林類事』 解題, (孫穆, 앞의 책); 金鎮玖, 鷄林類事の 織物關聯用語研究, 服飾文化研究, 1999(7卷 2號), p.214. 紵麻布에 관한 기록은, 順治版 『說郛』와 『古今圖書集成』에 “苧曰毛, 苧布曰毛施背”라 기록되어 있고, 民國版 『說郛』에는 “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라 기록되어 있다.
- 25) 趙汝適(宋). 諸蕃志 卷上, 新羅國條 ((1986).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p.594冊-26).
- 26) 李基文(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서울: 동아출판사, p. 239.
- 27) 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특별전. 예산: 수덕사근역성보관, pp. 78-81.
- 28) 徐兢(宋).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23, 雜俗2, 土產 ((197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p.119). “其國自種紵麻, 人多衣布, 絕品者謂之紵, 潔白如玉, 而窳邊幅, 王與貴臣皆衣之.”
- 29) 閔吉子 (2000). 韓國傳統織物史研究, 서울: 도서출판 한림원, pp. 18-19.
- 30) 彭大雅撰·霆疏證 (1985). 黑韃事略. 北京: 中華書局 (史衛民, 앞의 책, p.89, 재인용). “舊以氍·毳·革, 新以紵·絲·金線.”
- 31) 順治版 『說郛』와 『古今圖書集成』의 『鷄林類事』 기록.
- 32) 民國版 『說郛』의 『鷄林類事』 기록.
- 3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 편집실編 (2000). 中韓辭典,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p. 3183.
- 34) 주 23) 참조.
- 35) 주 9) 참조.
- 36) “冬帽而夏笠.” 彭大雅撰·徐霆疏證, 黑韃事略 (史衛民, 앞의 책, p. 93, 재인용).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서 황제 여름철 質孫服 중의 “白毛子金絲寶裏”와 “駝褐毛子”에는 “白藤寶貝帽”의 帽을 쓴다.
- 37) 包銘新, 崔圭順 (2005). 敦煌莫高窟第332窟元代供養人服裝研究, 敦煌研究, 8, pp. 10-15.
- 38) 權衡, 庚申外史 卷下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編 (1996). 四庫全書存目叢書, 濟南: 齊魯書社, pp.45冊 232-233: “京師達官貴人必得高麗女, 然後爲名家. 高麗婉媚, 善事人, 至則多奪寵. 自正以以來, 宮中給事使令, 大半爲高麗女, 以故, 四方衣服鞋帽器物, 皆依高麗樣子.”; 張昱, 宮中詞 (柯九思等(1988). 遼金元宮詞,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pp.17-19): “宮衣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 陶宗儀, 『輟耕錄』卷28, 處士門前怯薛, “杜清碧先生本應召次錢唐, 諸儒爭趨其門. 燕孟初作詩嘲之, 有‘紫藤帽子高麗靴, 處士門前當怯薛’之句, 聞者傳以爲笑. 用紫色棕藤縛帽, 而制靴作高麗國樣, 皆一時所尙.”
- 39) 韓儒林, 앞의 책, pp. 250-251.
- 40) 陳維稷主編 (1984). 中國紡織科學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pp. 383-385.